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휴직율 증가에 따른 방안 모색과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강릉시의회 김복자의원

존경하는 강릉 시민여러분!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깨비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김한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현원 부족으로, 대 시민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는 2021년 2. 4일 기준으로, 정원은 1,419명이며 현원은 1,358명입니다. 결원 인원은 61명으로 4.3%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강릉시 공무원 휴직 상황에 대해 조사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휴직 현황입니다. 휴직 누적 인원을 보면, 2016년 59명, 2017년 69명, 2018년 88명, 2019년 104명, 2020년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대비 휴직율을 볼 때, 2016년 4.6%, 2017년 5.3%, 2018년 6.5%, 2019년 7.6%, 2020년 8.1%로 5년 전에 비해 공무원 휴직율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휴직 종류별에 있어 질병 휴직은, 2016년 12명, 2017년 12명, 2018년 16명, 2019년 22명, 2020년 30명으로 5년 사이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사휴직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에서 최근 질병 휴직과 육아휴직 증가 비율이 높았으며 결원율이 많은 부서로는 수도과가 정원 37명 중 현원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각 읍·면·동은 정원이 1~2명 모자라는 곳이 많으며 특히 서울사무소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4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직율 증가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질병 휴직 현황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시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인사이동과 정비례 할 확률이 높습니다.

급여의 7할을 받더라도 심신을 쉬고자 하는 직급이 낮은 젊은 공무원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강릉시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2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무원 휴직율이 높다면, 실제 일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책임성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게 되어 현업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 되어 또 다른 질병 휴직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은, 대체 인력풀 구축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결원에 대해 대체교사를 바로 투입하여 보충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리스트 구축조차 미비합니다.

직무 및 관련 전문성에 기초한 대체인력풀의 대상은 퇴직 공직자, 행정 유경험자, 공익요원 등으로, 대상 가능 인력의 범위를 리스트업 하고, 총액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마다 강릉시의 명시이월은 약 2천억원이 됩니다. 일하는 공직문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공무원 조직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범죄수사통보 내용을 보면,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14건이었고 2020년은 28건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징계처분 내역도 감봉, 정직 등의 중징계가 늘었습니다.

실과 재무감사에서도 행정상 조치 건수가 늘었으며, 재정상 조치 금액도 2019년 2백6십여만원에서 2020년은 4백5십여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 문책과 관련에서도 2019년 ‘인사운영 지도감독 소홀’ 등 27건에 대해 훈계로 처분 되었고, 2020년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과도한 채용기준 변경을 통한 채용 기회 제한’ 등 37건이 훈계 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 강릉시 공무원의 출장비, 초과 연장근무 등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그 위법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데 더욱 속고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관리에 철저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주 52시간제의 적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민원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강릉시의 활동보조 중개 시스템은,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 이용자를 케어함에 있어 중개기관 한

곳만을 이용해야 하며 52시간 밖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대소변 처리, 목욕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바뀌는 것을 꺼리게 되지만, 52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을 친밀감을 갖고 5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적극 요구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